

이달의 이웃



Contents

(프르나셰티 특별전) 전시회를 관람하며!	2
강북센터 1차 자조모임(보치아)	4
강북센터 단기체험을 진행하고.....	6
나의 생활 나의 미래	8
개계와 사회와 유니버설디자인이 장애인 편의에 미치는 영향	10
겨울 끝자락을 붙잡고 온천을.....	14
생활 속 장애비하 단어	16
(장애인에티켓) . 시각장애란?, 시각장애인의 에티켓 .	18
이달의 정보	20
이달의 시	22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3
광고	24



[포르나세티 특별전] 전시회를 관람하며-

문지수



오늘따라 구름으로 인해 흐려진 날씨, 마치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다. 강북센터 자립생활기술훈련 사업은 전시회 관람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문화 체험 및 여가 생활을 하고 감성을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4호선 동대문운동장역 1번 출구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배움터 지하 2층에서 개최하는 '포르나세티 특별전'을 관람하였다.

'포르나세티?'

그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지금 이 소식지를 보시는 여러분께서도 궁금하실 거라고 추측되어진다.

피에로 포르나세티 (Piero Fornasetti), 미술 예술가로써 1913년 11월 10일, 이탈리아 출생하였고, 1988년 10월 9일 사망하였다. 디자이너로써 한때 활동한 전적이 있었고 영화감독, 무대미술감독으로 활동을 하였다. 아들인 바르나바 포르나세티는 아버지인 피에로 포르나세티의 작품을 지키고 포르나세티의 감성을 현대의 디자인과 결합시키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자들과 피에로 포르나세티의 전시물을 감상하였다.

"와아-, 신기하네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릇 등 일반 예술가들과 다른 특유의 감각으로 예술품을 표현한 포르나세티의 작품에 낯설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만큼의 작품이 빛을 발휘하기에 참여자들도 새롭게 느끼시면서 감상 하시는 것 같았다.

'그-피에로 포르나세티'의 작품 중에 눈에 들어올 정도로 인상적인 작품들이 많았다.

그래서였을까?

참여자들도 제각기 '그-피에로 포르나세티'의 작품에 발걸음을 멈춰 그 자리에서 작품을 응시하며 생전에 피에로씨가 작품에 심혈을 기울인 그 흔적에 감탄하였다.

전시회 관람이 금방 끝난 것 같아 조금은 아쉬움이 남았지만, 참여자분들은 오랜만에 본 미술작품에 감성이 흥만하여 싱글벙글 미소 지으며 굉장히 좋아하셨으며, 나 또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함에 저절로 웃음을 머금은 것 같다.



"Art may be a mirror of a person's mind.
(예술은 사람의 마음을 비친 거울일지도 모른다.)"

강북센터 1차 자조모임[보치아]

주영경

2017년 2월 11일(토) 10시 ~ 12시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3층 강당에서 1차 자조모임 [보치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017년에는 2월 ~ 11월까지 월 1회, 둘째 주 토요일로 보치아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며, 자조모임 의미를 살려 서울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모임을 형성하였다.

1차 자조모임 [보치아] 프로그램 당일, 계획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집되어 보치아 공 2세트를 가지고 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몇몇 분들이 도착해계셨다. 홈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스텝이 재빨리 세팅 및 따뜻한 온풍기를 틀어 참가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으며 그렇게 정각 10시가 되자 많은 분들이 모였고 게임진행을 서둘렀다.



첫 번째 게임은 2인 1조로 팀을 이뤄 진행되었다. 강북센터와 인연이 닿아 처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이용자분들도 여러 사람과 어울리며 스포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팀원을 고르기 위한 치열한 게임이 시작됐다. 이긴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얻어 팀원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인 1조 2회 진행 후, 잠시 휴게시간을 통해 자유롭게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 자조



모임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어 즐겁다며 활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뿌듯한 날이었다.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인을 포함하여 다 같이 게임에 참여하는 단체전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치열한 가위바위보가 시작됐다. 6:6으로 팀을 나눠 4set씩

2회 진행하였다. 홈팀의 압승으로 게임은 마무리가 됐고 재빠르게 강당 주변정리를 한 뒤 배고픈 배를 채우러 지하층 식당으로 모였다.

사전에 준비했던 한솔도시락 치킨마요덮밥을 배분 한 뒤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식사시간을 보냈다. 이번 강북센터 자조모임 [보치아] 프로그램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즐거우셨는지 다음 달 행사를 기다리게 될 것 같다며 다음 2차에도 꼭 참여하시겠다고 하였다.



강북센터 단기체험홈을 진행하고…….

문지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기술훈련으로 진행되는 단기체험홈은 자부담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이다. 지역사회로의 자립 의지 및 욕구가 있는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자립준비 및 체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보호와 시설생활을 벗어나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2017년 첫 체험자는 이은재 군이었다.

현재 주몽재활원 소속이지만 자립을 앞두고 있는 20대 남성으로 자립에 대한 의지가 활활 불 타 오른다. 단기체험홈 입주 당일, 강북센터 사무실에 큰 가방을 하나 메고 아주 싱글벙글한 모습으로 방문했다.

“안녕하세요~”
“은재군 왔어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담당자와 함께 강북센터 단기체험홈 장소인 목인트라움 606호로 향했다. 간단하게 짐을 풀고 자신이 세운 계획서를 훑어보았다. 저녁식사로 요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토대로 그에 맞는 식재료를 사러 마트에 방문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활동도 진행해보았다.

저녁준비에 필요한 식자재를 모두 구입한 뒤 본격적으로 요리를 해보았다. 오늘 메뉴는 “김치볶음밥!”



요리를 해준다는 말에 은재군과 절친이자 누나인 김소연씨도 체험홈을 방문하였다. 짧은 팔로 인해 김치와 햄을 볶는 은재군의 몸이 반 이상 가스레인지 앞으로 기우



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위태로웠지만 본인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 하나로 잘 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담당자로서는 부상위험에 간단한 음식을 먹으면 하는 마음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잘 해내는 은재군 덕분에 맛있는 김치볶음밥을 맛볼 수 있었다.

그렇게 저녁식사와 설거지를 끝낸 후 약간의 휴식시간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다 시간이 늦어 은재군만 체험홈에 남고 다들 돌아갔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명동과 영화관람 등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기고 있는 은재 군에게 카톡이 왔다.

“저 지금 소연누나랑 커피랑 빵 먹고 있어요. 맛있겠죠?”

은재군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곤 하였다.

“맛있겠다~ 재밌게 놀고 일찍 귀가해요^^”

이렇게 짧은 1차 단기체험홈 2박 3일 일정이 끝나고 담당자로서 느낀 점이 있다면 시설과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자립에 대하여 스스로 계획을 해보고 체험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나의생활 나의 미래

장민정



제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강북센터)를 알게 된 개기는 당시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가 강북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이었어서 알게 되었고, 당시 남자 친구였던 그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부터 강북센터에 자주 오가게 되었으며, 센터 행사가 있을 때면 참석도 많이 하면서 직원 분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동료상담가로써 활동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마땅치 않아 고민하고 있던 터에 강북센터에서 '강북구청지원 사업'으로 2017년 동료상담가를 뽑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는 학수고대한 동료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 바로 입사지원서를 응시하였습니다.

동료상담가 양성교육을 수료하였지만 면접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생겨 다시 한 번 동료상담에 대한 공부를 하고 드디어 면접날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면접장으로 GO ~ !!

심사위원님들이 하시는 질문에 하나하나 답을 하다 보니 더욱 긴장이 되는 것 같았고 알고 있던 질문에 답도 머릿속이 백지가 되어 버벅 거리기도 하였으며, 어찌어찌 우왕좌왕 하면서 그렇게 면접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1분이 1년처럼 느껴질 만큼 길기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동료상담가로 활동하고 싶은 내 꿈이 제대로 좌절될까봐 마음을 졸이다가 도 긍정의 힘을 믿으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면접결과 전화가 왔습니다. 나의 긍정에 힘이 통하였는지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결과는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을 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을 걷는 느낌이었고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친정엄니에게 말하였더니 저보다 더 좋아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첫 출근을 하던 날..... 늦어도 8시 30분까지 출근을 해야만 하기에 계획대로 준비를 빨리 한 덕분에 다행히도 늦지 않고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출근을 하고 일을 한 건지라 허리가 아프고 목이 빠근하였지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시간이 머피나 빨리 지나가던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퇴근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출근부터 지금까지 두 달여 동안 근무를 하며 더 오랫동안 강북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졌고,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자기개발에 노력하여 씩씩하고 똑똑한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센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기계화 사회와 유니버설디자인이 장애인 편의에 미치는 영향

허효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보조기구도 발전하고 좀 더 사용이 편안해지고, 보조기구디자인도 간소화 되었다. 또 오늘날에는 유니버설디자인으로 비장애인이나 장애인 누구라도 사용하기 편하게 디자인을 많이 개발하는 추세이다. 보조기구나 유니버설디자인이 아니라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재활치료 로봇이라 하여 치료가 목적인 로봇들도 개발되기 시작함에 따라 여기에서는 보조기구나 설치비용이 정감 되어 건물 안·밖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치들이나 유니버설디자인과 재활치료로봇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어디든지 올라가는 휠체어 'SCEWO'



4개 휠 바퀴, 4개의 전기 모터

4개의 바퀴 4개의 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터구성을 위한 배터리 스펙이나 모터의 스펙은 사용시간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기존에 있었던 전동휠체어의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편함으로 바꾸려는 아이디어를 현실화 시키는 기술 개발의 결실인 SCEWO 휠체어의 기기는 활용도가 높을 듯하다.

SCEWO는 스위스 기술연구소(ETH)와 취리히 예술대학의 공동 작품으로 현재 상용화된 제품은 아니며 제품을 테스트하고 개선하여 출시 예정인 제품이다. 두 개의 바퀴로 무게중심을 잡으며 주행하는 세그웨이 시스템을 적용했다.

SCEWO는 일반도로를 주행하는 두 개의 바퀴에 메인 모터가 장착되고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개발한 두 개 바퀴에 서브모터가 장착하여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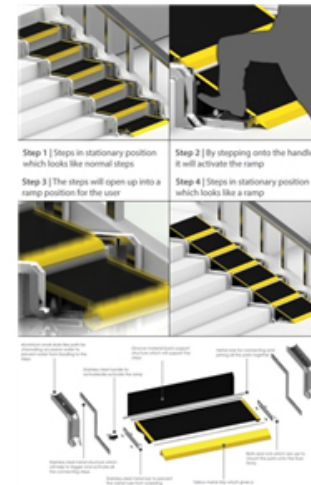
지하철을 타다 보면 휠체어도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리프트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처음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일반 건물에는 설치하기 어렵고, 사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작은 문턱과 적은 계단에서 더 좌절하게 된다.

오늘 소개할 아이디어는 적은비용으로 휠체어도 이용할 수 있는 계단이다. 'Convertible

Convertible Ramp



경사도가 되는 계단



Convertible Ramp 설계 설명

'Ramp' 는 계단의 형태를 경사로로도 변환 가능하게 설계되어 레버를 밟기만 하면 쉽게 경사로로 바뀌어 휠체어에 앉아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다.

'모닝워크'



하지(下肢)재활로봇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나라 또한 이미 지난 2000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가 되어 2018년에는 노인 비중 14%, 2026년에는 20% 넘어서면서 각각 고령화 사회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이 예견되어진다.

이 같은 고령화는 노인환자와 심혈관계 질환자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활치료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줄 의료용 복지로봇 산업육성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재활치료로봇은 고도성장미 예견되어진다.

최근 한국기계연구원 의료지원로봇연구실 우현수 박사팀은 2015년 9월 현대중공업과 서울아산병원은 하지(下肢)재활로봇 '모닝워크' 를 공동개발해 국립재활원에 설치했다.

유니버설디자인이 국내에 소개된 지 10년이 넘었다. 유니버설디자인 하면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제 유니버설디자인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디자인으로 인식이 바뀌었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지하철 2, 4, 5호선이 환승하는 곳으로 얼마 전까지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대표적 역사였다. 이곳이 얼마 전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으로 접근성을 개선하였다. 경사로의 유효 폭이 1.5m 이하로 충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단보다 경사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서울의 스타벅스는 거의 휠체어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국내 커피브랜드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이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철학과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교복지기전전시회에 전시된 장애인 화장실로 변기 정면에 몸을 기댈 수 있는 수직이동형 안전바를 설치해 놓은 것이 특징



신주우역 화장실 안내 사인으로 픽토그램을 크고 선명한 컬러로 하였고, 화장실 내부구조를 점자 표시로 해 놓아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음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 70억 명 중 장애인은 10억 명으로 추산되고, 특히 70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은 장애를 갖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 환경과 건축에 대한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법규와 제도 정비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고, 산업적 관심이 필요하다.

해외에 경우, 국가별로 무장애 혹은 이와 비슷한 개념의 비전과 원칙을 선정하여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Universal Design, Barrier Free, Design for All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거나 나라별 지향점과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도시, 건축 지역개발과 관련된 기존의 수정 및 새로운 기준과 같은 생활환경과 관련된 제도에 이러한 비전과 원칙이 기본이 되도록 반영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 환경개선사업, 교육 및 홍보와 같은 중장기 사업계획도 함께 세우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참여와 홍보가 주요한 사안인 만큼 시민들 스스로 전담 조직을 구축하여 지속적인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조례'가 2016년 4월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점자블럭설치 매뉴얼, 도시관리 매뉴얼, 무장애공원 가이드라인 등 관련 부서가 제각각 운영하던 가이드라인을 유니버설디자인으로 통합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도교 우에도 보도에 있는 지하철 환기구를 보도높이와 완전 일치하게 하여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음



벨기에 브뤼셀 차도에서 건물로 진입하기 위한 경사로가 보행자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음

도시란 교통, 공원, 각종 건물, 공공시설물 등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비로소 장애인을 포함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수립과 실행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자료출처-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471942&memberNo=481955&vTy pe=VERTICAL>

<http://blog.naver.com/poinnine/220167063789>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697&contents_id=110050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697&contents_id=123226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1433&contents_id=126047

겨울 끝자락을 붙잡고 온천을.....

문지수



노랑퐁선은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유명 온천 관광지를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는 국내 온천여행 기획전을 선보인다. 사진은 풍기온천 내부. <사진제공=노랑퐁선>

겨울 시즌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행과 함께 따뜻한 온천욕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국내 온천 여행'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노랑퐁선은 국내에서 즐길 수 있는 유명 온천 관광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온천여행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먼저 경상북도 울진에 위치한 '덕구 온천'은 손대지 않아도 솟는 국내 유일의 자연용출온천이다. 데우거나 식히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온도인 42.4℃를 유지한다. 중탄산나트륨, 칼륨, 칼슘, 탄산 등의 성분이 많이 함유된 약알칼리성의 온천수는

신경통, 근육통, 피부질환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 관광명소로 비운의 조선 6대 왕 단종릉이 있는 장릉 관광, 추추파크에서 레일코스터 체험,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덕구테마 계곡 등산, 수 억년의 신비로움이 있는 천연석회암 동굴 성류굴 관광, 한국의 그랜드캐니언으로 불리는 불영계곡 및 불영사 관광 등을 즐길 수 있다. 레일코스터부터 불영사까지 둘러볼 수 있는 '덕구스파/온천' 1박2일 패키지는 성인 19만 9000원, 소인 18만 9000원부터다.



덕구온천 모습. <사진제공=노랑퐁선>



풍기온천 모습. <사진제공=노랑퐁선>

경상북도 소백산 자락에 위치한 '풍기 온천'은 최고의 수질을 자랑하는 유황온천으로 유명하다. 유황, 불소, 중탄산 등이 온천수에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 만성 기관지염에 탁월하다고 한다. 온천 외에도 천년의 역사가 깃든 부석사

관광,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 소수서원 및 선비촌 관광,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암괴석을 자랑하는 청량산 관광, 가장 한국적인 한국의 명소 8곳 중 한 곳인 안동 하회마을 관광 등을 즐길 수 있다. '풍기온천' 1박2일 패키지는 성인 19만 2000원, 소인 18만 2000원부터다.

전라남도의 유명 온천으로는 '지리산 온천'을 빼놓을 수 없다. 동양 최대 규모인 테마파크와 노천온천 시설을 자랑하며 민족의 영산 지리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서 천연 게르마늄 온천수를



지리산온천 모습. <사진제공=노랑퐁선>

즐길 수 있다. 게르마늄은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증강시켜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왕복 곤도라를 이용하는 덕유산 눈꽃 관광, 환상적인 눈꽃과 함께하는 항복봉 트래킹, 세계적인 명산이자 연중 사시사철 사랑받는 마이산트레킹,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대둔산 설경 관광 등을 즐길 수 있다. 눈꽃명소 덕유산과 대둔산을 관광하는 '지리산온천' 1박2일 패키지는 성인 21만 3000원, 소인 19만 3000원부터다. 또한 한옥마을 관광, 지리산 8대 사찰 중 제일 큰 사찰인 천년고찰 화엄사 관광, 섬진강변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하는 레일바이크, 기암괴석과 마짙한 현수교가 어우러진 호남의 소금강 강천산 트레킹 등도 이용할 수 있다. 섬진강 즐기 따라 레일바이크와 전주 한옥마을을 관광하는 '지리산온천' 1박2일 패키지는 성인 20만 3000원, 소인 18만 3000원부터다.



척산온천 모습. <사진제공=노랑퐁선>

강원도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알칼리성 특수 온천 '척산온천'이 있다. 푸른 물빛을 띄며 감촉이 부드러운 특수 온천수를 즐길 수 있다. 척산 온천에 따르면, 석산 온천은 불소와 라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알칼리성 온천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특수 온천이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주변 관광지로는 가을동화의 무대, 실향민 정착촌 아바이마을, 3대 관음기도도량 가운데 하나인 낙산사, 설악산, 드라마 겨울연가의 촬영지로 알려진 남이섬 등이 있다. '척산온천' 1박2일 패키지는 성인 20만 6000원, 소인 19만 6000원부터다.

자료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20900092228928>

생활 속 장애비하 언어

전남희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욕설들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들이다. 또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마저 장애인 비하로 물들어있다는 사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욕설로 병신을 예로 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병신’이란 단어일 것이다. 흔하길 병신짓 한다, 어휴 저 병신, 병신 크리티컬, 병먹금 같은 말을 일상적으로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병크-병신 크리티컬/병먹금-병신에게 먹이 금지)

그렇다면 병신(病身)이란? 「명사」 ①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또는 그런 사람.

②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주로 남을 욕할 때에 쓴다.

③어느 부분을 갖추지 못한 물건.

3가지 뜻 어느 것을 보아도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또 관용구나 속담에서도 병신이 들어간 문장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병신 욕같다라는 관용구가 있죠. 장애인 단체에서는 이런 병신이라는 단어를 사

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사실 당연한 말이지요. 장애를 욕설로 사용하고 희화화한다면 장애인도 비장애인으로부터 점점 소외되어버릴 것이다.

두 번째로는 병어리/귀머거리가 있는데, 병어리와 귀머거리는 각각 언어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이다. 사실 귀머거리는 요즘 자주 쓰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병어리는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다.

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장갑 등 때문에 한 때는 병어리장갑을 ‘손모야 장갑’이라고 부르자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세 번째는 장애우이다. 사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헛갈리는 단어이기도 하다. 장애우는 장애인을 친근하게 부르자는 의미에서 장애+벗 우友로 사용하는 것인데, 의미자체로 보자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를 사용할 경우 장애인들은 자신을 친구라고 부를 수 없고 장애인을 비비주체적인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한 표현이다. 장애우가 아닌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다.

또 장애인의 반대말은 일반인이나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이다. 물론 일반인은 일반인이라는 단어 자체로 보았을 때는 연예인과 일반인처럼 쓰이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애인의 반대말로써 쓰이는 경우 그 의미가 특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정상인이라는 표현은 장애인이 비정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에 일반인, 정상인이 아닌 비장애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장애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아냐다.’라는 표현이 아닌 ‘갓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며 장애를 극복하다 보다는 ‘장애를 잘 받아들여’라는 표현이 좋다. ‘너 장애인이나?’ 라든지 ‘너 고자야?’, ‘정신병자야?’ 라든지 ‘미친년’, ‘미친놈’ 등 장애를 욕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훨씬 더 많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대표적인 것들만 몇 가지 뽑아왔다. 장애는 놀림감이 될 이유도 농담 소재로 사용될 이유도 없다.

사소한 것부터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영원히 차별로 가득할 것이다. 저는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 편견 없고 폄하 없는 사회를 지지한다.

자료출처- http://blog.naver.com/sw_dmi/220863524786

이미지 출처-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50>

[장애인에티켓]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의 에티켓·



시각장애인 눈의 기능이 저하되어 사물을 잘 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장애의 기준은 시력 또는 시야의 이상 유무 또는 그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시력의 저하는 안경으로 보완되므로 장애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안경,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교정시력으로 측정을 한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은 교정시력이 0.02이하인 사람을 말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의 구별도 되지 않을 경우는 전맹 또는 완전실명이라고 하고 밝고 어둠은 구별할 수 있으며, 약간 볼 수는 있으나 1미터 앞의 손가락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준맹이라고 한다. 또한 시력이 저하되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불편한 대로 할 수 있는데

책의 보통 크기의 글씨를 읽을 수 없는 경우를 약시라 한다. 시각장애인은 시력교정을 위해서 안경을 착용하기도 하고 빛에 대한 감각을 느끼기 위해 색깔 있는 안경(렌즈)을 착용하기도 한다.

시각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있으며 확실한 원인을 알수 없는 경우도 있다. 후천적 시각장애는 대부분 백내장, 녹내장, 트라코마 등 여러 질병이나 안구에 이물질, 화학물질에 의한 손상 또는 천공 등 안구부 외상에 의해 발생한다. 이 밖에도 영양결핍, 약물중독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며, 드물게는 심리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5세 이전에 발생한 전맹아는 사물에 대한 개념이 뚜렷하지 못하다. 시각장애인은 지능은 정상이며 또한 촉각, 청각 등 다른 감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이용하여 시각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길 알려주기- 1)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만일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면 가능한 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도움을 줄 때는 숫자를 사용해서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2) 길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특히 도로상태 도로에



설치된 것 등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것 들을 상세히 설명해 줍니다.

- 걸을 때-** 1)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팔을 시각장애인에게 내줍니다. 팔을 잡고 걷게 되면 훨씬 수월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팔은 팔꿈치부위이나 팔꿈치 위를 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시각장애인의 팔을 잡는 것은 실례되는 행동입니다.
- 2) 만일 시각장애인이 당신의 팔을 잡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시각장애인이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붙어서 걸습니다.
- 3) 시각장애인이 팔을 잡을 때는, 갑자기 돌거나 또는 움직이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예외적인 어떤 곳에 접근할 때는 우선 멈춰 서서 처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 4) 뒤로 돌 때는 팔을 잡은 채로 같이 돌지 말고 시각장애인에게 방향 바꾸는 것을 이야기하고 팔을 놓으라고 한 다음 앞으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방향을 바꾸고 다시 팔을 잡도록 합니다.
- 5) 문이 닫혀진 곳에 있을 때는 돕는 사람이 문을 열어 주거나 또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손잡이에 갖다 대주어 시각장애인이 직접 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안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 6) 회전문의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열리는 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 지팡이-** 1) 지팡이는 안내견과 마찬가지로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활용구입니다. 지팡이의 뾰족한 끝으로 땅을 더듬으면서 걷고 턱을 찾고 장애물을 탐지합니다.
- 2) 시각장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지팡이를 만지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가지고 돌아다닐 때는 천천히 그리고 불완전하게 이동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커다란 어려움이 보일 때까지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 3)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때는 지팡이의 반대편에 서서 당신의 팔을 내줍니다.

이달의 정보

이용로 박사의 휠체어테니스 및 재활운동교실 참가자 모집

전 휠체어테니스 국가대표와 현 재활운동전문가인 이용로박사의 재능기부. 장애인스포츠와 장애인재활운동법을 지도.

- 기 간: 2017년 1월 매주 금요일 ~ 6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1시 ~ 4시
- 장 소: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 테니스 코트
- 인 원: 장애인과 비장애인 10명
- 준비물: 본인의 열정과 시간준수
- 문 의: 010-6299-6735 이성용(서울시테니스협회)
010-3005-2246 이용로(특수체육개발원 대표)

자료출처-

<http://www.ablenews.co.kr/Blog/PostBoard/BoardContent.aspx?BlogID=ableblog&getPostCode=ableblog200609191651541&Seq=105804>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모바일 신청 가능

복지부, 2월1일부터... '복지로' 앱 다운 후 확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2월1일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을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기존 PC에서의 서비스와 동일하게 보육료, 양육수당 및 유아학비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한 것.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안드로이드 마켓에 접속해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온라인 신청 메뉴로 접속해 보육료 등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1단계) 보육료 등 서비스 선택 및 주의사항 확인 → (2단계) 자녀양육 동영상 시청하기 → (3단계) 가족구성원 정보 조회 후 신청 기본정보 입력 → (4단계) 보육료 자격조회 등의 처리 → (5단계) 보육료나 유아학비 서비스 선택 시 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 (6단계) 신청서 제출 및 신청내용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다만, 보육료 신청을 "어린이집(0~2세)종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가능 자격조회에서 가구단위 및 가구원 기존의 추가 자격정보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가족정보 제공동의 절차를 거친 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은 '온라인신청 홈페이지' 나 '복지로앱 온라인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게시판에 질의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유아학비지원 콜센터(1544-0079)로 문의해도

된다.

자료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70131115041569092>

올해 1152개 읍면동 '복지허브화 확대' 추진

복지·행자부, 맞춤형 지원·찾아가는 복지 등 제공

올해는 장애인, 특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들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복지허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금년에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맞춤형복지 전달팀이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확대되어 어려운 이웃을 먼저 찾아가 도와주고,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게 된 것.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복지허브화가 추진되는 읍면동 지역을 14일 발표했다. 올해 1152개 읍면동이 최종 복지허브화 추진 지역으로 선정, 총 3502개가 운영된다.

올해 말이면 총 2,246개 읍면동 주민들이 찾아가는 상담, 맞춤형 통합 지원 등 복지허브화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1152개 읍면동 중 618개 읍면동은 '기본형' 복지허브 모델로 그동안 신청접수 위주의 기존 복지 외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담당할 전달팀을 신설하게 된다. 534개 읍면동은 '권역형' 모델로서 180개 중심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되어 인근 일반읍면동 354개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읍면동복지허브추진단에서는 2.15일부터 3.3일까지 올해 복지허브화 추진 방안에 대한 사도별 정책설명회를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개최하여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행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2016년에 먼저 복지허브화가 추진된 1094개 읍면동에서는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상담 106만7000건을 실시하고 복지 사각 지대를 발굴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91만2000건을 제공했다.

읍면동들 중심으로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각종 지역 내 민간 복지자원 약 229억원 상당을 지역주민과 연계했으며, 민간협력 인원 7만1000명이 참여해 운영하는 등,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본격 추진 첫 해부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복지부와 행자부는 "지난해 1094개소에 이어 올해 1152개소 읍면동을 추가해 2018년까지 전국 3500여개 전체 읍면동의 복지허브화를 추진해 모든 지역 주민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촘촘하게 찾아서 도와주고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읍면동의 복지허브화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2&newsCode=002220170214120916657650>

결단이 필요한 순간

김낙회

원칙과 융통성은 함께 가야한다.
원칙이 뼈대라면 융통성은 근육이다.
뼈는 혼자서는 못 움직이고
근육이 움직여야 함께 움직인다.
그러나 근육은 뼈 자체의 방향과
한계를 벗어나서 움직일 수는 없다.
근육이 뼈의 원래 각도보다
더 큰 움직임을 요구하면
부러지게 마련이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 수납업체 및 목적 (수납업체 기재란)			
수납업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납목적	회원회비
대표자	정종남	사업자등록번호	210-82-68864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906호		
◆ 자동이체 신청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신청정보	신청인	예금주와 관계 : ()	연락처
	납부금액	<input type="checkbox"/> 고정금액 () 원 <input type="checkbox"/> 변동(추가 계약내용에 따름)	납부일
금융거래정보	은행명		매월 25 일 *이날시 일 재출금
	계좌번호		
개인정보	예금주생년월일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포털CMS 자동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 종료일(해지일)까지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포털에프엠에스㈜, 금융기관(하만 신청가능은행 한빛, 통신회사(SKT, KT LGU+, CJ헬로비전)등, 자재와 내물은 홈페이지 기사(www.afmc.co.kr/제휴사 소개 메뉴 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이름 목적: 자동이체서비스 제공 및 자동이체 동의 사실 통지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일 부터 자동이체의 종료일(해지일)까지. 단, 관계 법령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보관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업체가 제 3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 시 자동이체 신청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자동이체 동의여부 동의지 안내 : 포털에프엠에스㈜ 및 금융기관은 안전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금주 휴대전화번호로 자동이체 동의 사실을 SMS(또는 LMS)로 통지합니다. 신청인(예금주)은 신청정보,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에 동의하여 상기와 같이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회비 납부를 위해 포털CMS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17년 02월 회비납부 명단

권윤정 김낙현 김석현 김소연 김숙이 김용자 김은미 김은순
 김재환 문지수 박남주 박동열 박민숙 박시연 배소영 손연숙
 안병훈 안해영 오재준 유수근 윤두선 이경희 이영석 이영훈
 이태연 이하용 임상욱 장민정 전난희 정종남 정주영 주영경
 최윤숙 최건균 허효숙 홍점표

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서울시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사업

집단동료상담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

집단동료상담은 중증장애인에 동료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서 오는 이야기들을 공유함으로써 감정해방과 장애수용을 보다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므로써 자기주체적 사고방식을 습득하고 잠재적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도모하며 시설장애인 및 재가장애인이 집으로부터 독립을 희망하는 자립생활의 구체적 실현과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함께 어울려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집단동료상담’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 많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사업명	‘집단동료상담’
기간	2017년 03월 21일(화), 2017년 07월 18(화)
장소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실 1118호
대상	서울 및 강북구 지역 장애인
모집인원	1회당 6명
주최·주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	서울특별시
접수방법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 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daum.net 접수 및 팩스 접수
기타문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화: 02-908-7776 , 이메일: kbcil@daum.net , 팩스: 0303)0799 - 1758
강북센터주소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빌딩 11층 1119호 ☎: 01062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328 가든타워빌딩1119호 (지하철4호선 수유역 3번 출)

Tel : 02-908-7776 FAX : 0303-0799-1758

